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흐리고 바람

노동부, 양주시청, 서정대학교간 협약체결을 통한 201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3D프린터교육과정 개강식을 어제 거행하였다. 오늘 오전 8시 20분 출근하자마자 공학관 201호 강의실내 외부를 순회하였다. 오전 9시 30분부터 강의를 시작되기 때문에 수강생 총 20명 중 7명이 출석하였다. 개강식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한 관계로 일찍 출석한 수강생들과 상호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이 강좌는 1개월 .과정으로 실제 약 300만 원정도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는 3D프린터특별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강료 및 강사료전액을 지원해주는 교육과정이란 점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수강생들이 부러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날 수강한 사람 중에서 포기한 경우가 발생하여 황당하였다. 평생 동안 한번 올까 말까하는 이와 같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헌신짝 버리듯 단 하루 만에 포기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학교 측에서도 취업연계사업이란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투자한 사업이란 점에서 하루 종일 포기한 수강생의 어리석음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난해 창업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9개학과 960명의 학생들이 창업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 개설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그 의미가 지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과 취업의 양 수레바퀴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일반인대상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료와 동시에 취업연계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교육과정이다.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렵고 창업 또한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우리 주최 측도 살신성인의 자세를 견지하여 수강생들 모두가 새로운 진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져본다. 소년 가장으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땀 흘리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신념으로 살아온 인생 역정을 불사를 각오로 본 과정뿐만 아니라 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 스마트창업터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임은커녕 겸임교수도 아닌 시간강사에 불과하지만, 창, 취업 성공을 위해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창업지원센터 총괄 매니저로서 헌신봉사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황금지상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현상을 직시해볼 때,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할 따름이다.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재양성을 통한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창업지원센터는 상기 과정뿐만 아니라 금년에 중소기업청 스마트창업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12개 창업 팀을 선발 배정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사업인데, 교육과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설하게 되었다. 창업실무, 실전창업, 빅 데이터를 이용한 앱 창업, 사물인터넷(IoT)활용과정, 클라우드를 활용한 앱 창업과정 등으로 개설되어있으며, 현재 수강생 모집 중이다. 이처럼 창업과 취업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취업준비든 창업이든 매진하고 진력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정부지원금 등에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기업가정신 및 인성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참여자들의 성공만을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나이 60중반에 청소년(대학생포함) 및 3~40대 중년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실망스럽기만 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창업자 중 매출 3억 원 이상, 40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 등의 실적 등에 보람과 감동의 스토리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국애족차원의 일환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창, 취업사업에 전심전력으로 헌신 노력할 것이다. 실업자가 없어지는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서 말이다.